

# 서울국제건축영화제, 5년

## 건축사가 만드는 영화제!

# 건축을 주제로 세상과 소통하다

### 집·행·위·원·회(가나다순)

윤재선 건축사 / 팀일오삼 건축사사무소(주)\_위원장

김규린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좋은 집

김성호 영화감독

김창길 건축사 / 삼정환경 건축사사무소

박혜은 영화평론가

유현준 홍익대학교 교수

최상기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개막식 전경



포토타임(유영식감독-양미라-이정호감독)

‘건축, 영화와 만나다’를 명제로 시작된 서울국제건축영화제가 올해로 5회를 맞는다. 건축영화제는 그간 건축과 영화의 접점을 찾고 이를 통해 국내의 다른 영화제들과 차별화될 수 있는 고유의 색깔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다.

### 건축사의 브랜드 전략 - 서울국제건축영화제(SIAFF)

사실 건축영화제는 건축사의 브랜드 인지도와 가치를 높이기 위해 어려운 건축경기와 예산여건 하에서도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한 건축문화이벤트다. 현재 국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영화제들이 비교적 큰 규모 국제행사로 치러지고 있는데, 건축영화제는 ‘건축사가 중심이 되어 ‘건축’이라는 특정 영역을 테마로 꾸려내는 영화제라는 점에서 비교적 탄탄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 특히 국내 유일의 전국영화제 형식이라는 점을 내세울 수 있는데, 대한건축사협회 16개 시도건축사회를 통한 지역 건축문화행사내 건축영화상영 지원으로 전국 상영회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건축영화를 통한 GV, HAF 등 교육과 소통의 영화제 형식이라는 점에서 SNS를 즐기는 학생 등 젊은층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4년간 1만 여명 관객관람,  
색깔있는 영화제로 오히려 영화계에서 인지도 높아**

서울국제건축영화제는 4년(2009년~2012년)동안 서울시민과 대중 등 1만 여명의 관객이 건축영화를 관람했고, 평균 관객점유율 60%, 매년 5개국 이상의 총 43편의 건축영화가 상영됐다. 세계 유일의 건축사협회가 주최하는 국제건축영화제로서 아직 작고 미미하지만 건축영화 수급을 통한 해외건축 네트워크의 고리역할도 수행하고 있는 점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건축영화와 더불어 영화제는 건축사들이 관객들 앞에서 작품을 발표함으로써 대중들의 건축에 대한 인식,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HAF(호스트 아키텍트 포럼), 영화인과 건축인들의 상영작에 대해서 대담을 나누고 관객들과 호흡할 수 있는 GV(관객과의 대화) 등이 매년 마련되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것은 곧 영화제 흥행과도 연결되고 있다. 입소문을 타면서 건축영화제는 영화계와 영화인들 사이에서 오히려 더 높은 인지도를 갖고 있을 정도.

여기에 건축을 아끼고 사랑하는 셀러브리티들의 네트워크로 건축영화제를 홍보하는 Festival Architect가 선정되어왔다. 제1회 배우 지진희와 박시은, 제2회 배우 변정수, 제3회 배우 박상민과 황우슬혜, 제4회 배우 양미라가 위촉돼 활동하며 영화제에 힘을 실어준 바 있다.

**올해 환경영화제와 함께 더 다양한 건축영화 상영예정,  
국토교통부 예산지원 확정**

특히 올해는 환경재단이 주최하는 서울환경영화제와 함께 이전보다 훨씬 많고 다양한 건축영화를 선보이며, 더욱 재미있고 흥미로운 테마를 펼쳐 보일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로부터 국고보조를 통한 예산확충으로 외형확대를 이룰 수 있게 됐다.

**경쟁부문 신설, 장기비전 갖고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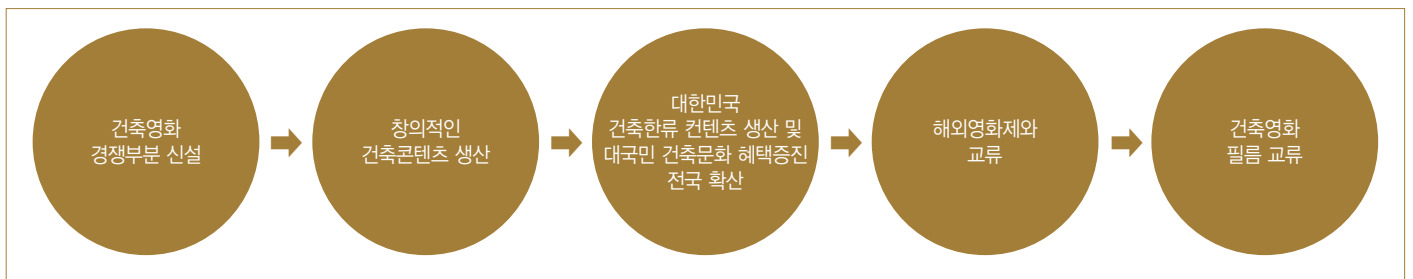
이전까지는 영화상영, HAF·GV로만 영화제 내용이 구성됐다. 미래의 서울국제건축영화제는 건축콘텐츠 생산, 국제교류를 겨냥한 건축필름 경쟁부문 신설 비전을 갖고 준비중이다. 이른바 국제건축영화경선을 말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예산확충이 선결돼야 해서 정부 및 서울시의 영화제 예산지원, 고정 기업스폰서 개척 등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다. 건축필름 경쟁부문은 장편 및 단편대상, 심사위원 특별상 등을 제정해서 최근 2~3년 사이 제작된 국내의 영화제 작품작 가운데 건축관련부문 영화로서 심사를 통해 선정하게 된다. 한국건축영화경선이라는 경쟁부문도 도입하여 본 영화제에서 상영되는 한국작품 가운데 국제건축영화경선의 출품조건을 만족하는 작품을 대상으로 우수건축영화를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건축의 숨결로 영화를 가다듬고  
영화의 빛으로 건축을 밝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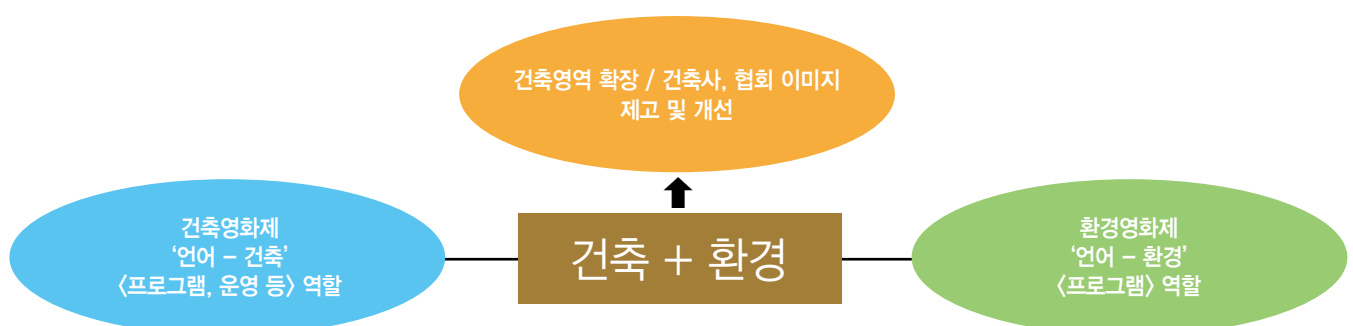
건축영화제는 기획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얼마든지 성장, 발전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으며, 대중의 큰 관심을 끌어모을 수 있다는 점과 특히 영화에서 건축은 무시 못할 스펙터클로 견고한 영역을 구축하고 있어 다른 어떤 영화제보다도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내 유일무이한, 한국 건축을 보다 넓고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건축영화제의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되는 이유다.

올해 영화제는 오는 10월 31일부터 11월 5일까지 서울 이화여대 ECC내 아트하우스 모모 2개관에서 6일간 열리게 된다. 자세한 일정은 서울국제건축영화제 웹사이트(www.siaff.or.kr\_곧 업데이트 예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축영화제 장기비전**



**향후 영화제 운영구성도**



서울국제건축영화제 상영작 Review(총 43편)

구분	1회	2회
주제	<b>건축사(The Architects)</b>	<b>링크(Link)</b> 건축과 사람, 건축과 역사, 건축사와 사회의 연결고리와 관계를 탐색
상영작	<p>1. 마천루 2. 프랭크 게리의 스케치 3. 마이 아키텍트 4. 램 콜하스 : 도전과 혁신 5. 노먼 포스터와 거킨 빌딩 6. 취화선</p> <p>6편</p>      	<p>1. 비주얼 어쿠스틱스 2. 건축사의 배 3. 성가신 이웃 4. 프라하의 눈 5. 시티즌 아키텍트 6. 나의 놀이터 7. 콜하스 하우스 라이프 8. 기무 9. YTN스페셜 : 한국건축문화 60년</p> <p>9편</p>         

전 세계 건축과 디자인분야 영화제 들여다보기(정기개최 영화제)

● Winnipeg, Canada

캐나다 위니펙에서 열리는 '건축+디자인영화제'는 일상에서 건축과 디자인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초점을 맞춰 호평을 받은 영화를 선정해 상영한다. 영화는 건축과 도시디자인에서부터 그래픽과 상품디자인까지 디자인에 기반을 둔 광범위한 범위를 아우른다. 2012년에 시작된 영화제는 매년 5월 개최 예정이다.

● Aix on Provence, France

'Le festival Image de Ville'은 매년 11월 프랑스 엑상프로방스 지역에서 열리는 영화제다. 도시개발과 토론, 프랑스 영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 영화제는 토론대회와 다소 섞인 형태다.

● Antwerp, Belgium

AFFFA는 매년 11월 벨기에 안트워프에서 열리는 작은 영화제다. Klappei cinema가 관장한다.

● Auckland, New Zealand

Resene 건축과 디자인 영화제는 2012년 5월에 처음 개최됐다.

● Budapest, Hungary

매년 3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는 건축영화의 날이 진행된다. "로테르담건축영화제에서 영감을 받아 2007년 KÉK에 의해 만들어진 '건축영화의 날'의 목적은 영화에서 영감을 얻은 건축적 작업과 건축과 도시로부터 주제를 빌려온 영화의 대화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 Denver, USA

미국 덴버에서 열리는 '건축+디자인 영화시리즈'는 Design on Screen가 기획한 건축과 디자인분야를 다루는 최고의 영화를 선정한다. "영화제는 다이내믹한 영화제작자들과 건축사 및 디자이너가 참여하는 활발한 토론을 포함해 9개의 특별한 영상이벤트를 진행한다."

● Dublin, Ireland

2011년 5월 16일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첫 번째 건축영화제가 열렸다. 아일랜드 건축재단 웹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The Fourth Wall은 영화제작의 기본구조 안에서 주인공과 적극적인 참여자가 건축을 드러낸다. 이것은 영화의 몰입도와 서사능력을 연결한다. 순수한 다큐멘터리 도구로서 눈으로 보는 수단보다는, 규정하기 힘들더라도 영화가 본질적인 건물의 수준과 환경을 어떻게 드러내는지 고려하도록 자극시킨다. 건축적 장소와 공간의 풍요로움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이 시리즈는 세속적 그리고 정신적인 차원에서 또한 기억과 허구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건축물에 거주하는지에 대한 전 개념에 질문하고 도전한다. 이 시리즈의 많은 영화들은 아일랜드에서 상영된 적이 없는 것들이다."

● Eindhoven, the Netherlands

매년 9월 디자인위크 동안 '영화+디자인 페스티벌'이 네덜란드 에인트호벤에서 열린다. "페스티벌은 네덜란드 디자인위크 동안 개최될 것이다. 2010년 대규모의 성공적인 첫 개최 이후 수백만의 방문객과 강력하고 흥미로운 디자인 영화, 에인트호벤에서 터

3회	4회
<p><b>비트윈</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프루이트 아이고</li> <li>2. 인사이드 피아노</li> <li>3. 죽은 자의 정원 : 카를로 스카르파</li> <li>4. 유토피아 런던</li> <li>5. 빌딩 173</li> <li>6. 메구니카</li> <li>7. 192-399 더블어 사는 집 이야기</li> <li>8. 요른 웃존의 시드니오페라하우스</li> <li>9. 100명의 여성 건축사 : 라이트 스튜디오</li> <li>10. 증오</li> <li>11. 도시</li> <li>12. 일주일</li> <li>13. 일렉트릭 하우스</li> <li>14. 폭풍의 밤</li> <li>15. 로베르토 : 개미 건축사</li> <li>16. 픽셀</li> </ol> <p>16편</p>    	<p><b>도시</b> 삶이 공존하는 진정한 의미의 도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에쿠메노폴리스</li> <li>2. 코추</li> <li>3. 말하는 건축사</li> <li>4. 브라질</li> <li>5. 판타스틱 플래닛</li> <li>6. 위대한 유산</li> <li>7. 상계동 올림픽</li> <li>8. 모래</li> <li>9. 하루에 다섯 도시 다섯장소</li> <li>10. 바람 불어 좋은 날</li> <li>11. 위대한 침묵</li> <li>12. 어바니제이션 인 차이나</li> </ol> <p>12편</p>    

치다운한 페스티벌은 올해 몇몇 지역에서, ‘영화+디자인 페스티벌’은 동시대 디자이너들의 작업과 삶에 대한 영화를 상영한다.”

● Florence, Italy

BEYOND MEDIA는 현대건축의 전 세계적으로 공헌한 가장 최근의 시각에서의 주요 행사이자 건축과 미디어 사이에 존재하는 강력한 관계들의 결과물 중 하나다. “BEYOND MEDIA는 건축과 관련된 영상물을 상영하는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행사다. 이것은 건축의 최신 시각 및 프로젝트와 미디어 관계의 논쟁에 공헌한다. 페스티벌은 1997년 이탈리아 플로렌스에서 처음 개최됐다. 건축(경제적 시나리오와 혁신 과정에서 문화적 구조를 구축하는 참가자)과 현장조정, 기술, 건축 연구영역의 시리즈를 차례차례 발전시키는 미디어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를 탐험한다.

● Rotterdam, the Netherlands

로테르담건축영화제는 2년마다 홀수년도 10월에 개최된다. 단편과 다큐멘터리 100여 편에 이르는 영화가 상영되며, 영화제 4일 동안 국내외 5000여 명의 관객이 모여들어 토론과 토크쇼, 투어 등이 진행된다.

● Istanbul, Turkye

이스탄불국제건축도시영화제는 매년 10월 개최된다. 건축문화 개발과 역사적 유산보호 그리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노력에 대해 초점을 맞춘다.

● Lund, Sweden

룬드건축영화제는 스웨덴 Lund에서 매년 10월 개최된다. 圖

윤재선 집행위원장 인터뷰

● 현재 건축영화제 진행상황에 대해

올해 영화제의 가장 큰 목표는 사람들에게 “아! 서울국제건축영화제가 꼭 필요하고, 유익하구나”라고 인식시키는 것입니다. 건축과 영화에 관련된 집행위원들을 모셔 실질적인 준비와 결정을 하고, 각 학계와 타 분야의 인사들을 찾아 물어가며, 의견을 듣고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만나 빈 분들이 호의적으로 시간을 할애해주고 있어 점점 우리 영화제의 개념을 정리하고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건축영화제는 영화와 건축계의 사람들만으로는 힘들다는 결론 속에 이 같은 여러 분야의 분들을 모셔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핵심적인 인물들, 즉 오피니언 리더들을 구성하여 그 역량을 모으고자 합니다. 왜 그리 요란하게 준비하느냐 얘기할 수도 있지만 건축영화제가 가지고 담는 담론들을 준비하고, 얘기하고, 논하고, 추려 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만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문을 활짝 열고 모든 사회의 가치들을 모아 서로 느끼고 즐기는 화합의 장이 되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 건축영화제를 사랑하는 분들에게 한 말씀

건축과 영화가 하나의 단편적인 분야라는 인식을 넘어 사람이 중심이 되는, 그 시대의 세계관과 삶이 담겨지는 그래서 미래의 삶을 이끌어갈 인프라를 구축하는 통합적 가치들을 담을 수 있는 장으로 발전되어야 우리에게도 새로운 가치가 창출될 것이고, 그래야만 건축영화제가 비로소 역할을 다하고 있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하며 다자의 가치가 함께하는 공존의 미학을 추구하는 새로운 장이 대한민국 서울에, 2013년 10월31일에 시작하는 서울국제건축영화제에서 펼쳐진다는 즐거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해나가는 서울국제건축영화제를 지켜봐주셨으면 합니다.